


















2019
8·15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일제 강점기 34인의 간호사와 간호학생은 병실에서, 길거리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이러한 숭고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이어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간호사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p>임수명 (1894~1924) 독립운동가 신명균 선생과 결혼. 항일 비밀문서 연락과 배포. 적의 총탄에 숨진 남편 따라 자결.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박자혜 (1893~1944) 간우회 활동 주도. 만주에서 단재 신채호 선생과 결혼해 함께 독립운동. 독립투사 지원 임무 수행.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p>	 <p>정종명 (1896~미상)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인 이갑성을 돕다 체포. 경성여성동우회 활동. 간우회 간부로 여성계원과 독립운동 앞장.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이정숙 (1899~미상) 합성단애국부인회 조직.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경성지부장 및 적십자부장 활동. 체포돼 대구 감옥에 수감.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이성완 (1897~미상) 정신여학교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 배포. 대한민국애국부인회 결사대장 등 활동.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박원경 (1901~1983) 황해도 재령 만세운동 주도해 옥고 치름. 농촌계몽운동, 독립운동가 가족을 도움.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대전충원 애국지사 제450명 안치.</p>	 <p>탁명숙 (1892~미상) 1919년 3월 5일 학생들의 대대적인 만세시위에 참여. 강우규 의사 피신 돕다 투옥됨. 함경도 동명여학교 설립. 건국포장 추서.</p>
 <p>김태복 (미상~1933) 대한민국애국부인회, 의용단, 군우회 등에서 독립운동 주도. 1930년대 빈민과 고아 위한 사회사업 펼쳐 추경반응. 건국포장 추서.</p>	 <p>노순경 (1902~1979) 상해임시정부 군무총장을 지낸 노백린 장군의 처녀. 서울 훈정대(대묘) 및 만세시위 주도해 옥고를 겪음. 대통령 표창 추서.</p>	 <p>이도신 (1901~미상) 노순경, 박덕혜 등과 대묘 앞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겪음. 대통령 표창 추서.</p>	 <p>김호순 (1902~미상) 노순경, 박덕혜 등과 대묘 앞 만세시위를 주도하다 체포돼 옥고를 겪음. 대통령 표창 추서.</p>	 <p>박덕혜 (1900~미상) 서울 훈정대 대묘 앞 만세시위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다 체포돼 옥고를 겪음.</p>	 <p>이아주 (1898~1968) 3·1운동 당시 정신여학교 학생들과 만세시위를 주도해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p>	 <p>채계복 (미상) 1919년 3월 5일 학생 만세시위 참여. 연해주에서 부인독립회의 간부로 양성교육 실시. 의연금 모금활동.</p>
 <p>한신광 (1902~1982) 3·1운동으로 체포됨. 조선간호부협회 초대회장. 군우회 활동. 경성여자소보초학 참여. 3·1여성동지회 태극반지 받음.</p>	 <p>한귀래 (1911~미상) 항일운동 어려웠던 1930년대 중반 독립운동에 참여. 차인유지법 위반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됨.</p>	 <p>홍덕주 (1890~1935) 남자간호사.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 조선독립신문 입수에 배포한 혐의로 징역형 선고받음.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김금석 (미상) 남자간호사.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로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p>	 <p>김안순 (1900~1979)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p>	 <p>김화순 (미상) 광주지역 만세운동 참여. 징역형 선고받음. 대통령 표창 추서.</p>	 <p>박옥신 (미상) 대한적십자회 대한지부 회원과 평의원,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발한 활동.</p>
 <p>윤진수 (미상)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적십자부장 맡아 활동.</p>	 <p>장윤희 (미상) 독립운동가들 배포해 징역형 선고 받음.</p>	 <p>조명숙 (미상) 원산 구세병원 간호사로 3·1운동에 참여.</p>	 <p>김응숙 (미상) 만주지역 독립운동단체 학생광복단 에서 활동하다 체포됨.</p>	 <p>김오선 (미상) 애국부인회, 부인적십자단 등에서 독립운동.</p>	 <p>송정현 (1919~2010) 한국광복전선총연맹조직. 한국혁명여성동맹 참법요원으로 활동.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최혜순 (1900~1976) 상해만민애국부인회의 집시장으로 활동.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p>
 <p>최승원 (1917~미상) 항일운동이 어려웠던 1930년대 독립운동에 참여. 경성노조사건으로 투옥.</p>	 <p>이애시 (미상) 3·1운동에 참여. 대한청년단연합회에서 활동.</p>	 <p>김은도 (미상)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p>	 <p>장옥순 (미상)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p>	 <p>박봉남 (미상)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p>	 <p>김여운 (미상)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서 활동.</p>	



대한간호협회 광주광역시간호사회 전라남도간호사회